

히라카타시 시장 후시미 다카시입니다.

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급 확대에 의해 번째가 되는 “긴급사태 선언이 4 월 2 일 오사카부를 비롯한 4 도부현에서 발출 되었습니다. 기간은 5 월 11 일까지의 17 일간입니다.

신규 감염자가 연일 1000 명을 넘고 있는 오사카부의 상황은 지극히 심각하고 의료의 궁핍은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. 중증 환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병원의 병상 사용율은 100 퍼센트 이상이되어 전원할 수 없고 중등증 병상에서의 치료를 피할수 없게 되어 있는 분도 계십니다. 그러나 그 경증 중등증 병상의 사용율도 8 퍼센트를 넘어 수락을 담당하는 시립 히라카타병원이라도 감염의 급확대를 받아 병상수를 증상했습니다만 거의 다 사용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

오사카부는 선언의 발령에 따라 전 부민에 대해 불요불급의 외출이나 부외로의 이동 자숙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술이나 가라오케를 제공하는 음식점이나 대형 상업 시설에 대해서는 휴업을 이벤트에 대해서는 원칙 무관객에서의 개최를 각각 요청하고 있습니다.

우리 시로서도 이 “제 4 파” 라고 불리는 감염의 급확대를 선언 기간 내에 부가 요구하는 “불요불급의 외출 자숙” 의 요청에 최대한 응답대책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. 거기서 오늘 26 일부터 공공 시설의 원칙 휴관이나 이벤트 자숙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했으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.

이들은 3 월에 제한을 해제한 곳이므로 “또 한번” 등 낙담해지고 있는 이용자 분도 계시겠지요. 그러나 감염력의 힘이 새로운 위협인 “변이 바이러스” 이 의료 현장의 궁핍을 가져오는 큰 요인이고 지금까지의 대책이 통용되지 않는 가능성도 있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.

병상이 부족한 것으로 구급 반송된 환자의 반송처가 정해지지 않고 몇시간이나 구급차 안에서 기다리게 된다는 사례가 우리 시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. 부득이 구급차에 돌아와 주고 자택이나

시설에서의 요양이 되는 쪽이 늘어나고 있어 또 감염자의 급증에 의해 보건소의 조사나 지원이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는 악순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러한 가운데 만약 감염해 증상이 무겁게 되어 버리면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염을 주위에 넓혀 가족이나 친구 등 소중한 사람의 생명까지 위험에 처하게 해 버리는 가능성마저 있는 것을 한번 더 자신의 일로서 생각해 보세요. “불요불급의 외출자숙” 이란 구할 수 있을 것인 생명을 구할수 없는 등 한 최악의 사태에 빠져 버리지 않기 위해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.

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에 대해서입니다. 우리 시에서는 이미 65세 이상의 분에게 접종권을 우선했습니다만  접종의 예약 접수를 끝낸 워크 뒤 5월 7일(금)부터 스타트합니다.  접종은 17일 개시의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4월말에 가정에 전달하는 홍보 히라카타 5월호를 비롯하여 히라카타시 홈페이지에서도 알려 드리겠습니다.

백신 접종은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한 “비장의 카드”이며 안전하고 신속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에 전력을 하는 중입니다. 그러나 백신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.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인식해 감염을 넓히지 않는 생활 습관을 확립해 가는 것입니다.

이 이야기를 꼭 친밀한 분들에게도 전해 주세요.

인내의 끝난 워크 가 됩니다만 40만 시민의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행정에서도 전력으로 임하겠습니다. 시민의 여러분도 함께 힘을 합하여 이 난국을 넘어 갑시다.

레이와 3년 4월 26일

히라카타시 시장 후시미 다카시